

GANGWON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IV 학생을 학교의 온전한 주인으로 세우기

- 1 _ 학급 규칙, 내가 만들고 지켜요!
- 2 _ 학생자치회,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요!
- 3 _ 동아리 활동, 교실에서 벗어날 기회예요!
- 4 _ 행복한 교실, '소통다이어리'로 일궈가요!
- 5 _ 소규모 테마체험 중심의 수학여행
- 6 _ 소중한 꿈과 체험을 만드는 현장체험학습
- 7 _ 3월이 살아있는 학급운영

1 학급 규칙, 내가 만들고 지켜요!



내가 만들어 지키는 규칙의 소중함

“공부하려고 하는데 선생님이나 부모님께서 ‘공부해라’라고 말씀하시면 하기 싫어진다.”라고 아이들이 말하곤 합니다. 학교에서 이러한 생각을 인정하고 지도하면 어떨까요? 학급 아이들이 직접 규칙을 만들고 지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스스로 만든 규칙이니 더 잘 지키지 않을까요? 규칙을 지키는 것은 학교생활뿐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법질서를 지키며 사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바탕이 되겠지요. 아이들이 지킬 수 있는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아요.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지켜요”

“학교폭력, 예방 선언적 캠페인은 이제 그만. 우리 스스로 만든 규칙으로 행복한 학교생활 만들어요” 인제중 학생들이 특색 있는 학급별 규칙을 제정, 학교폭력 없는 학교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학년 초 ‘우리가 정하고 우리가 지키자’라는 학생자치회의 결정으로 시작된 학급별 규칙은 기존의 선언적 의미에서 벗어나 ‘싸움을 하지 않는다(1-1)’, ‘발표를 열심히 하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한다(1-2)’ 등 실천할 수 있는 9~10개 정도의 작은 규칙들로 이뤄져 있다. 인제중 학생회는 이 밖에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을 거쳐 남녀 학생들의 퍼머를 허용하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게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도 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2.08.27.)

이렇지는 않나요?

아이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급 규칙을 만들어 보았지만 하루 이틀만 지키려 노력할 뿐, 몇몇 아이들은 규칙과 상관없이 지내지는 않은가요? 그러면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들어가고, 아이들과의 힘겨루기(?)가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벌금을 부과하는 형태를 비롯해 처벌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벌금을 납부하면 면죄부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학급 규칙 어떻게 만드나요?

■ 일반적인 학급 규칙 제정 절차

【학급 상황 파악】⇒【학급 규칙(안) 작성】⇒【학급 규칙 제정 및 공포】⇒【학급 규칙 공표(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림)】

■ 규칙 제정 시 고려할점

- 규칙은 벌을 주기 위하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점검하도록 도와주는 지침 또는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
- 규칙은 학생들의 인격적·학업적인 욕구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습활동과 연계되어 개발 설정
- 학생에게 규칙의 준수만을 요구하고 학생에 대한 존중을 보여 주지 못할 때 규칙은 무의미하고 지켜질 확률이 낮음

■ 학급 규칙이 갖추어야 할 요건

- 학생들은 학급에서 적용될 규칙 설정에 참여할 필요가 있음
- 규칙들은 가능한 한 적게 제정해야 함
- 학생들은 학급집단이 합의한 규칙들에 대한 수락을 분명하게 나타내어야 함
- 학급상황에서 설정된 규칙들은 학급외부에서 경험하는 규칙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생 행동을 점검하고 자주 토론 기회를 가져야 함
- 학생들은 규칙들이 중요한 타인(부모나 친구들)에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때 그 규칙들에 따라 행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학급 규칙을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어야 함

이런 학교가 있네요!

강원 인제 인제중학교에서는 모든 학급별로 규칙을 만들어 스스로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학급에서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만들기 위한 선언

인제중학교 3학년 1반

1. 우리 학급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2.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적극 도와준다.
3. 외롭게 혼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는다.
4. 갈등이 생겼을 때에는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한다.
5. 함께 결정할 일이 있을 때 친구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인다.
6. 청결한 교실을 만들기 위해 다음을 지킨다.
 - 교실 바닥에 휴지를 버리지 않는다.
 - 청소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한다.
7. 평화로운 학급을 만들기 위해 다음을 지킨다.
 - 급우를 때리거나 따돌리지 않는다.
 - 친구와 무언가를 함께 하거나 짝이 났을 때 싫은 티를 내지 않는다.
- 비난할 목적으로 욕설을 사용하지 않는다.
- 친구가 싫어하는 말이나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다.
- 급우에게 일방적으로 심부름을 시키지 않는다.
- 성적, 외모, 성격을 이유로 놀리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8. 꿈이 영그는 교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다음을 지킨다.
 - 수업 시작 시간을 철저히 준수한다.
 - 준비물, 과제물, 탐구활동, 발표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 조별활동 시간에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돕는다.

선생님도 함께해요!

아이들이 지킬 학급 규칙을 정하셨다면, 선생님도 아이들에게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의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보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으로 말이예요. 학생들은 학생들에게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학생을 신뢰하는 선생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하지요. 아래와 같이 교사 십계명을 정하고 아이들을 만나 봅시다.

〈담임교사 십계명〉

1. 차별하지 않는다.
2. 체벌은 절대 하지 않는다.
3. 학생들의 인격을 존중하겠다.
4. 학생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5. 학생들과 함께 참여하겠다.
6. 칭찬을 아끼지 않겠다.
7. 학생들의 이름을 부르겠다.
8. 하루에 몇 번이고 학생들과 인사하겠다.
9. 유머를 아는 선생님이 되겠다.
10. 친절한 선생님이 되겠다.

♪ 잠깐만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꿈꾸고, 아이들이 제 꿈을 펼치며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약속을 해보면 어떨까요?

아이를 살리는 7가지 약속

1. 지금 행복한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행복합니다.
2.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공부는 '마음껏 놀기'입니다.
3.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게 성공입니다.
4. 아이와 노동자가 행복해야 좋은 세상입니다.
5. 교육은 상품성이 아니라 인간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6. 대학은 선택이어야 합니다.
7.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입니다.

〈2012.5.5. 경향신문〉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 빛깔이 있는 학급 운영 1, 2, 3(편집부, 우리교육, 2004)
- 초등 학급 운영 1, 2(편집부, 우리교육, 2005)
- 참여소통 교육모임(<http://www.chamtong.org>)

이것만은 꼭!

학급의 규칙을 세우기 전에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선생님만의 계획서가 필요한 않을까요? 결국 규칙을 세우는 것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일 테니까요. 규칙 만들기에 앞서 오늘은 무엇으로 아이들과 어울리며 행복할 것인지 생각해 보아요!

2 학생자치회,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요!



왜 학생자치회일까요?

학교 폭력의 가해학생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교사의 책임이 강조되는 각종 대책들이 언론지상을 채우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이나요? 어쩌면 학교폭력의 본질에서 벗어난 대중요법에 그치고 있지는 않을까요?

가해학생이든 피해학생이든 모두 우리사회의 미래를 이끌어 갈 주인공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스스로를 긍정하고 서로를 포용하며 동반자로 함께하도록 적절한 자유와 책임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을 학생자치회에서 시작하면 어떨까요? 학생들이 자치회 활동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아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새로 부임한 교감 선생님의 허름한 모습과 그분이 도입한 과감한 학사운영이었다. (... 중략 ...)

학생회 활동의 백미는 강당에 전교생을 모아놓고 오후 내내 벌이는 학생회 결산보고회였다. 나름대로 사회 시간에 배운 입법부의 활동이나 회의 절차 등에 관한 지식들을 총동원하여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데, 후배들도 모처럼 발언권을 얻어 마음 놓고 선배들을 질타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 중략 ...)

학생회 공간을 마련해주고 학생회비 집행을 학생회가 주관하고 전교생 앞에서 결산보고를 하고, 학사운영의 한 주체로 학교와 일정한 교섭력을 발휘하도록 해보자. 40년 전에 내가 했던 일을 내 제자들이 왜 못하겠는가! 그들에 대한 믿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디트뉴스24 교육논단 : 김영호(대전 보문고 교사), 2012. 2. 24.〉

선생님의 학교는 어떤가요?

학교마다 학생자치회는 구성되어 있지요? 학생자치회 선거과정에서 아이들은 많은 공약을 통해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만들며 활기찬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의 자율적인 자치활동을 보장하고, 학생 중심의 자치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학생자치법정을 구성해 스스로 질서를 잡고, 축제문화를 만들어 가기도 합니다.

반면, 학생자치회를 구성하였지만 활동은 지도교사의 계획 속에서 간부수련회 참가,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 전달 정도로 그치고 있는 학교도 많습니다. 학생들도 학생자치회 활동보다는 가산점을 목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생자치회는 어떻게 구성할까요?

학생자치회 구성은 학교마다 시기는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연초인 3월이나 연말인 12월에 학생회장 선거를 치른 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하기

- 사전 준비 : 투표소 설치
- 선거 절차 : 선거 공고문 게시 → 입후보자 등록(등록 신청서, 후보자 추천서) → 입후보자 등록 공고 → 벽보 게시 → 선거운동원 등록 → 소견발표 → 투표소 설치 → 투표용지 준비 → 투표 참관인 선정 → 투표 → 개표 → 확인 → 당선자 확정 및 발표 → 임명장 수여 → 가정 통신문 발송

♪ 잠깐만요!! 학생회장, 부회장 선출 과정에서 학교 방송망을 활용한 후보자간 토론회를 진행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TV를 통해 후보자간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의 판단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처럼 말이예요. 토론회에서 공약 실행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면 후보자의 정책보다는 외모(?) 등의 이미지에 의존한 투표가 이루어질 위험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 자치회 임원 구성하기

- 준비 활동 :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활동 내용 조사 및 부서 편성 → 임원 입후보 공고
- 선정 절차 : 심사위원 선정(학생회장단, 지도교사 등) → 임원 후보 서류 및 면접 심사 → 자치회 임원 확정 및 발표 → 임명장 수여 → 가정통신문 발송

학생자치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 학생자치법정

- 학교생활규정 위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법정을 열어 적절한 조치를 결정
-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배심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법정에서 학생은 나만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밝히면서 스스로의 행동을 되돌아 봄

■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학생자치회 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함
- 학교 의사 결정을 이해하며 학교 운영에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마음으로 다가서는 교문지도

- 선도 중심의 교문지도가 아니라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도우미 역할 담당
- 아침 인사하기, 프리 허그 등 학생들이 기쁘게 교문을 들어설 수 있는 활동 전개

■ 동아리화된 학생자치회

- 학생자치회 임원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 운영
- 동아리 활동 시간을 활용한 정기적인 학생자치회의 시간 확보
- 학생회실을 확보하여 학생자치회 활동을 위한 동아리 활동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동아리 체육대회 기획 및 진행

- 축구, 농구, 풋살 등 스포츠 동아리 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즐거운 학교 만들기
- 학생자치회에서 대회 규정 제정 및 진행을 담당

■ 학교축제 기획 및 진행

-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함
- 동아리 활동, 방과후학교, 수업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

■ 학생자치회 예산 운영 및 보고회

- 학교 예산에 학생자치회 예산을 반영하고 학생들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자치회 활동 보고회를 겸한 예산 사용 보고회를 개최하여 자치회의 발전방향을 도모함

■ 친구사랑의 날

- 친구 생일 잔치를 연중 계획하여 서로 아끼고 화합하는 문화 조성
- 절친과 사진 찍기, 사랑의 우편 배달부 행사 등 친구와 함께 하는 활동의 지속적 운영

이런 학교가 있네요!

■ 1년 만에 '즐거운 학교'로 변신

(고성군 거진중학교)



학생수가 170여명에 불과한 고성군의 작은 학교인 거진중학교는 학생자치회 활성화를 통해 획기적인 변화를 보인 학교로 손꼽히고 있다.

이 학교는 2011년부터 학생자치회를 크게 강화했다. 자치회는 우선 임원진을 학생들 스스로 구성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선거에서 뽑힌 회장단이 면접을 통해 임원진을 선발했다. 자치회는 평화로운 학교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급식소에서 질서 지

키기, 교복 바르게 입기, 친구 사랑하기 등의 생활 규정을 정하고 매일 캠페인을 벌였다. 학교의 주요 행사도 자치회가 도맡았다.

4월에는 4·19혁명을 기념해 기념식을 치르고 4·19와 관련한 학생 작품 전시회와 문화행사를 했다. 체육대회도 스스로 진행했다. 경기종목, 인원, 평가 방법을 모두 자치회의를 통해 결정하고 학생들이 직접 진행, 심판, 질서 지도를 해냈다. 6월에는 학생회장배 플라이닝 디스크 얼티밋 클럽 대항전, 10월 한글날에 맞춰 진행한 한글 으뜸왕 뽑기는 지난해 자치회가 처음 계획한 행사였다. 11월에는 학생의 날을 맞아 광주학생운동의 의미를 알리고 문예행사를 가졌다.

1년 넘게 자치회와 동아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한 결과 학교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연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70%에 가까운 학생들이 “나는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10년에 흡연, 폭행, 가출 등으로 학교장 징계를 받은 학생은 12건 61명이었는데 지난해에는 3건 8명에 그쳤다. 전 학년 평균 성적이 오르는 것은 물론 학교에 대한 입소문이 퍼지자 신입생이 늘어 지난해 2학급이었던 1학년은 올해 3학급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자치회를 지도한 ○○○선생님은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소통하면서 학교가 즐거워진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자랑했다.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 학생 자치 활동 매뉴얼(2011 강원도교육현장연구원제 개발 자료, 2011, 강원도교육청)
- 돌봄치유교실(<http://cafe.naver.com/ket21>)
- 학생자치법정(<http://cafe.daum.net/teen-court>)

이것만은 꼭!

학생자치회를 운영하다보면 학생들이 생각만큼 자발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은 힘들고 답답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가 아닌 연간 계획으로 실천할 수 있는 과제 하나를 선정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시작해 보아요. 참, 학생자치회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 '학생자치회실'은 꼭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요?

3 동아리 활동, 교실에서 벗어날 기회예요!



동아리 활동으로 즐거운 학교를~

이제는 학생을 어떤 대학에 보냈느냐가 아니라 그 학생이 제대로 꿈을 찾아갔느냐가 교육에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꿈을 찾아가는 활동이 바로 동아리 활동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신지요? 학교 성적만으로 학생들에게 경쟁을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학생들의 인성이 파괴되고, 삶이 팍팍해 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특기도 살리고 적성도 찾아간다면, 학교 폭력도 줄 것 입니다.

“복싱을 통해 스포츠 정신을 배우면 학교 폭력이 사라져요”

횡성군과 횡성경찰서는 지난해 횡성지역 학교폭력이 6건(22명)으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 3월 횡성지역 중고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으로 복싱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중 횡성고 7명 안흥고 1명 등 8명이 복싱을 배운지 3개월만에 도민체전에 참가해 전원이 메달을 획득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둬 화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엘리트 선수가 아니다. 횡성군과 횡성경찰서가 청소년 탈선 예방차원에서 만든 동아리 회원들이다. 동아리 활동 참여자는 중학생 27명, 고등학생 25명등 52명이다.

특히 이들8명은 방과 후 국가대표선수를 지낸 임중규(50·도복싱연맹 전무) 횡성복싱레저클럽 관장으로부터 하루2~3시간씩 운동했다. 횡성복싱레저클럽에는 경찰 상설상담실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대훈 형사(강력팀)가 학생들과 함께 땀흘리면서 멘토역할을 담당했다. 그 결과 일부학생들의 폭력성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형사는 “일부 말썽을 피우던 학생들이 스포츠 정신을 배우면서 목표의식이 생겼고 폭력의 위험성을 인식하면서 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2012.6.20.〉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본인이 소속된 과(科)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대학 시절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 같은 과에서 성적으로 경쟁하는 것보다는 같은 취미를 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이들에게도 그런 즐거움을 미래가 아닌 현실에서 느낄 수 있게 만들어 보자구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말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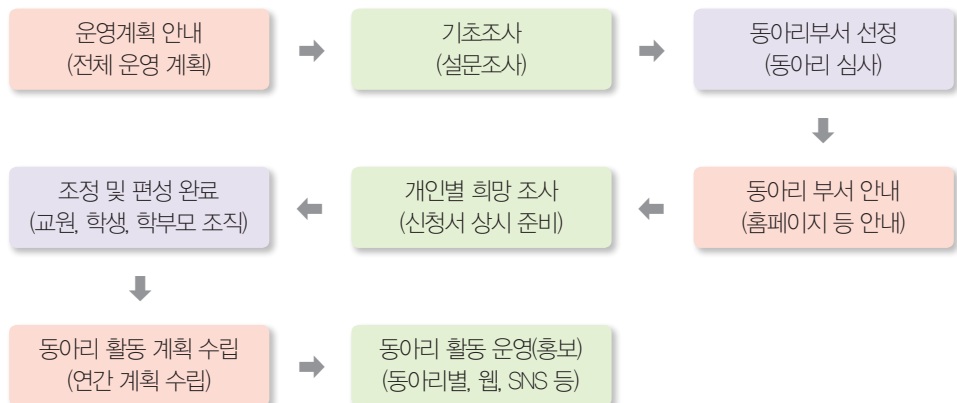
이렇게 해봐요!

■ 동아리 활동 시간 확보

- 테마 활동시간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 특정 요일을 정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활동 성격에(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실습 노작 등) 맞게 활동 시간을 다양하게 구성합니다.
- 고정된 활동 계획에서 학기별, 계절별, 행사별로 활동 시간을 다양하게 운영합니다.
- 학년별 통합 동아리 운영으로 활동시간을 확보합니다.

■ 동아리 활동 활성화

- 운영절차를 자세히 안내해요.



- 학생들의 자주적인 협의로 자생적인 동아리를 구성 운영합니다.
- 동아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히 합니다.
- 다양한 발표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학교가 있네요!

강원행복더하기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설악여자중학교는 학생중심의 동아리 활동을 알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아요~

■ 설악여중 동아리 운영 현황

가. 동아리 활동 규칙

- 1) 동아리 선배와 후배들은 서로를 보살피고 존중하며, 아끼 줄 알아야 한다.
- 2) 동아리 활동에 관한 모든 중요한 일은 토론을 거쳐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
- 3)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 4) 학교에서 주최하는 동아리 행사(동아리수련회, 동아리의 밤, 축제, 선거 등)에 참가해야 한다.

나. 동아리 구성

설악여중 동아리는 학생 자율로 만든 동아리와 교사가 주도하는 동아리로 나뉘는데, 교사 주도 동아리도 학생 자율 동아리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1) 학생자율동아리 : 울트라 사이언스 등 27개 동아리

번호	동아리이름	내용 및 특성	인원	지도교사/강사	장 소
1	울트라사이언스	과학기초지식과 실험 설계	11	명수정	과학실
2	Speed	농구반	17	김성준 / 김성문	체육관
3	레시피	요리를 통한 취미생활가꾸기	21	이혜경	가사실 / 2-6

2) 점차 자율동아리(교사주도 동아리 및 계발활동) : 그림비 등 18개 동아리

번호	동아리이름	내용 및 특성	인원	지도교사/강사	장 소
1	그림비	미술동아리	14	박희순	미술실
2	작은 씨앗	텃밭 가꾸기 동아리	17	고 석	1-2
3	오카리나	오카리나 배워서 연주	6	이윤정	3-6

다. 학생자율동아리 연합회장단 구성

직책	이름	활동 동아리
연합 회장	3-9 000	I.G.C
연합 부회장	3-5 000	I.G.C

라. 동아리별 연간 활동 계획

시 기	활동 내용(월/ 일)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 홍보 및 활동 계획서 작성 • 지도교사 위촉 및 외부지도강사 섭외
4월	<p>〈동아리 내 활동 방향 잡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 계획 수립, 동아리별 규칙 만들기, 동아리별 임원 구성하기 • 동아리 대표들 정기 모임 갖기 (매월 셋째주 수요일 점심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 모범 사례 공유하기 • 연합동아리 활동 계획 잡기 : 동아리 대표 수련회(4/6 ~ 7)
5월	<p>〈동아리 연합 활동 방향 잡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활동일지 전시를 통해 활동 내용을 공유하기 • 동아리 발표의 장 마련하기 – 작은 발표회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발표의 장 마련하기 – 작은 발표회 <p>〈1학기 동아리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인의 밤 행사 개최 (7/20 ~ 21)
10월	<p>〈2학기 동아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나리축제 전시마당에 참여, 장터마당 및 배우기 마당 개설 참여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발표의 장 마련하기 – 작은 발표회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발표의 장 마련하기 – 작은 발표회 <p>〈 2학기 동아리 활동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수련회를 통해 동아리 활동 평가하고 내년 계획 수립 • 동아리 연합회장단 / 동아리 일꾼 선출 (12/20)

■ 설악여중 동아리 발표회 – 학생들이 계획, 진행, 참여하는 동아리 발표회

1. 기간 : 2012년 7월 20일(금) ~ 21일(토)
2. 장소 : 각 교실, 나리관
3. 일정표

20일 (금)	13:50	동아리끼리 준비물 챙겨서 나리관에 모이기
	13:50 ~ 14:00	인원점검
	14:00 ~ 14:20	개회식, 야영에서 지켜야할 규칙과 일정 알리기
	14:20 ~ 14:30	동아리별 장터마당 준비
	14:30 ~ 16:30	동아리별 장터마당 진행
	16:30 ~ 17:30	저녁식사 및 발표준비
	18:00 ~ 20:00	동아리 발표회
	20:00 ~ 20:30	동아리 회의(1학기 평가, 2학기 계획세우기)
	20:30 ~ 21:00	학생귀가 지도 및 동아리별 캠프활동 준비
	21:00 ~	동아리별 캠프활동(자체계획을 바탕으로 진행)

4. 동아리 축제 예산

항 목	내 역	예산액(원)
운영비	문구류	150,000
	현수막	50,000
	저녁식사 밥 보조	400,000
발표마당	조명, 무대, 앰프	1,200,000
	의상 제작 재료비	100,000
	무대 분장 및 의상대여비	200,000
장터마당	27개 동아리 참여 필요물품 지원	1,500,000
상품비	장터마당 우수 동아리	100,000
	저녁식사 경연대회	100,000
	우수활동 동아리	100,000
합 계		3,900,000

여기 이사람!

동아리 활동으로 대학 갔어요~

건국대학교 사학과 윤태연 학생

원주 대성고등학교에 다니며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윤태연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역사 캠프, 역사 유적 답사 활동을 주로 하는 원주지역 중·고등학교 연합 역사 동아리(청문유해-청소년 문화유산 해설사의 줄임말) 활동을 하였다. 윤태연 학생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역사학자로 진로를 선택하였고, 2012학년도에 건국대학교 사학과에 입학정관제로 입학하여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노력 중이다.

문 : 역사동아리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답 : 역사에 관심이 있었고, 역사를 전공하신 담임선생님의 권유가 큰 영향을 주었다.

문 : 동아리 활동 중 가장 즐거웠던 일은?

답 : 역사를 전공하신 선생님들과 함께 역사유적을 둘러보는 것과, 역사에 대하여 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활동하는 것이 좋았다.

문 : 역사동아리 활동이 학교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답 : 진로선택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목적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고 학교생활에 임할 수 있었다.

문 :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한마디?

답 :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단순한 스펙을 쌓으려 하지 말고, 전공과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열심히 참여하는 것이 최고다.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 손에 잡히는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 시스템 매뉴얼(교육과학기술부, 2010)
- 창의인성교육넷(<http://www.crezone.net>)

이것만은 꼭!

동아리 활동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하기에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감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인 혼자 힘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 가는 작은 공동체이기에 협력도 중요시 되어야 합니다. 나아가 구성원 모두를 이해하는 소통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4 행복한 교실, ‘소통다이어리’로 일궈가요!



학부모와의 소통과 공감!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과 학부모와 관계도 늘 고민해야 합니다. 교사와 아이들만의 소통에는 한계가 있지요. 아이들의 아픔과 고민이 가정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을 때 과연 교사가 어느 선까지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벽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부모도 아이들의 고민을, 방향을, 아픔을 이해하고 바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생각에 부모님과 만나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다양한 학부모들이 존재하지만 단순한 하나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길은 오히려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부모 모임을 교실 안으로 끌어 들여 소통과 공감의 매개가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학부모, 학생, 교사가 함께 쓰는 모둠 일기, ‘소통 다이어리’입니다. ‘소통 다이어리’는 아동과 성인의 공감과 치유, 즉 삶을 가꾸는 글쓰기입니다. 다음 언론 기사를 보면 함께 쓰는 모둠 일기의 의미와 쓰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듬일기로 엄마 아빠 선생님 생각 나뉘요”

치악초 교사 주순영 씨. ‘엄마 아빠랑 함께쓰는 일기’ 5~6명 한 조, 온가족 참여해 일기 작성, 교육 고민·학교생활 진솔한 대화 눈길

주순영(45) 원주 치악초교 교사는 학부모와 아이가 돌아가며 쓰는 모듬일기를 통해 학급에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주순영 교사가 착안한 모듬일기는 부모와 아이가 한 일기장에 나란히 일기를 쓰고 각 글마다 정성어린 소감을 기록하는 것이다. 일기장에는 5~6명의 아이들이 한 모듬이 되어 차례차례 돌아가며 글을 쓴다. 모두 처한 형편은 달라도 삶이 고되고 아이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부모의 마음 등이 한결같이 묻어난다. 여기에 주 씨는 부모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헤아리고, 부모의 사소한 질문 하나에도 성의껏 답한다. 저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가보지 않은 길(모듬일기)을 같이 나서자고 조심스레 제안했을 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모듬일기는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 창구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2012.09.01.

이렇게 해봐요!

1. 참여 분위기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학기 초 가정통신문, 학부모 총회, 공개수업과 같은 부모님들의 교실 방문 자리에서 긍정적인 학부모 역할에 대해 지속적인 나눔과 공감의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요.

2. 함께 하는 사람들은요.

학급의 전체 학생과 그 부모님인 아빠, 엄마가 대상이에요.(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 함께 사는 친인척이 될 수도 있어요)

3.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홍보해요.

학부모와 학생의 동의를 얻고 소통 다이어리 쓰는 취지, 방식을 안내장으로 내보내요.

4. 모둠 구성은요.

학생이 30명일 경우 5명씩 6개의 모둠으로 나누어요.

5. 글을 쓰는 차례를 정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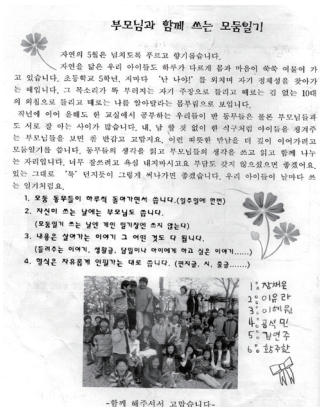
한 모둠 5명이 요일별, 또는 순번을 정하여 하루씩 돌아가며 씁니다.

6. 다이어리 공책을 내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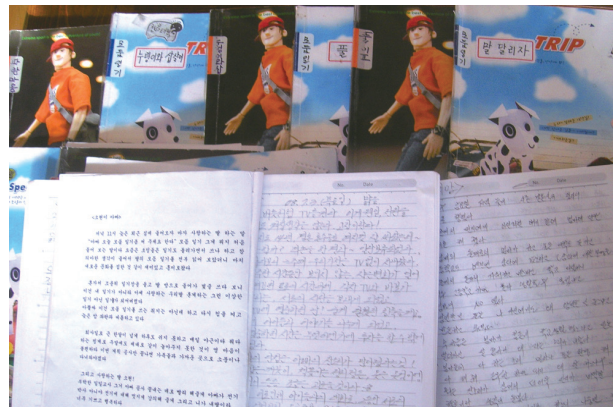
같은 종류의 공책을 교사가 마련하고 다이어리 맨 앞장에 활용방법과 안내글, 참여 모둠 구성 등을 붙여서 나누어 줍니다.

7. 순번대로 돌아가며 작성하기

학교 생활 안정기에 든 5월 무렵 시작하여 3개월 정도 기간이 좋아요. 자신이 정해진 요일에 학생과 그의 부모님이 다이어리에 글을 써서 다음날 학교에 가지고 오면 담임이 답 글을 쓰고 다음 순번에게 넘깁니다.



[안내글]



[준비된 공책과 쓴글]

8. 다이어리에 쓸 내용은요.

살아가는 이야기, 교사에게 바라는 글, 아이 상담, 고민, 아이와 주고받는 편지형식, 학교나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문제에 대한 의견, 바램 등 어떠한 것도 가능해요.

9.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좋아요.

일주일 만에 쓴 사람에게 돌아온 다이어리, 다른 아이와 부모님들과 교사 간에 이루어진 글을 함께 읽고 이해와 공감의 자료로 활용합니다. 교실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공유하는 거지요.

10. 문집으로 엮어 간직해요.

교육 수기, 자녀 상담 에세이, 개인의 소중한 추억으로 활용할 수 있게 문집으로 엮어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나누어드려요.

참여한 학생, 아빠, 엄마, 교사와의 인터뷰

[김○○의 아빠] – 내 아이만이 중심이 아닌 주위를 둘러보게 되었고 같이 커가는 친구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큰 아이와의 갈등, 그리고 고민, 엄마로서 다시 생각하는 동기가 되어 저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엉켜있는 가족이란 실타래를 푸는, 가족 관계회복의 밑거름이 되었지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이란 그래서 좋습니다.

[박○○의 엄마] – 아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선생님과의 공감대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 지 알 수 있는 기회였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눈과 모둠 일기에서 실제로 표현되는 글을 통하여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고, 느끼는지를 알게 되었고 나아가 부모가 나아갈 지침을 제공해준 좋은 방법이었다.

[정○○의 학생] – 엄마, 아빠는 늘 나에게 공부하라, 숙제하라, 일기 쓰라고 잔소리를 하는데 부모님과 같은 공책에다 일기를 쓰고 주고 받으면서 부모님 생각을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엄마, 아빠가 쓰신 글을 보니 신기하고 감동적이다.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마 부모님도 날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지?

[주○○ 교사] – 여러해 동안 학부모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을 실천해왔다. 결과는 감동적이고 놀라웠다. 교실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안들에 대해 학부모들이 알게 되었고 나누고 참여하면서 자신의 아이만이 아닌 다른 아이들에게도 관심을 갖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았다. 또한 교사의 학급운영에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었다. 학부모와 교사간의 갈등은 일어날 수도 없었지만, 일어나도 여러 학부모들이 의견을 내어 함께 해결해 주었고 학교 행사나 학급 행사에 자발적인 참여로 아이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 나감을 느낄 수 있었다. 갈수록 황폐화 되어가는 학교 현장에 이런 방식이 활용된다면 학교는 우정과 환대와 신뢰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 이오덕(2004). 삶을 가꾸는 글쓰기 교육, 보리
- 이호철(2009). 감동을 주는 부모 되기, 보리
- 주순영(2012). 엄마아빠랑 함께 쓴 일기, 보리
-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http://www.kulssugi.or.kr>)

이것만은 꼭!

- 학부모들과 충분한 사전 교감과 신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학기 초 부모님들과 만남 자리에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부모님들의 요구와 바람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시도할 때 더 큰 교육적인 성취와 감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5 소규모 테마체험 중심의 수학여행



학생들이 만들어 가는 성장여행

수학여행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현장학습의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벗어나 마음껏 대지의 기운을 호흡하고, 자연, 사회, 문화와 함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수학여행이지요.

“반끼리 떠나요” 우리만의 추억 체험 테마 수학여행



〈앵커 멘트〉 수학여행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단체로 줄서서 유적지만 보고 오는게 아니라 같은 반 학생끼리 장소를 정해 찾아가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이랍니다. 구영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예년처럼 수학여행은 한 학년 전체가 경주 등에 가지 않고, 반 학생들이 직접 갈 곳도 정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보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속에서 새로운 것을 체험하는 수학 여행입니다.

〈인터뷰〉 강석진(문정중 3학년) : “여기 오니까 시원하고 여름에 더위가 다 날라간 것 같아요.”

〈리포트〉 열심히 과일 숙기를 하는 이 여고생들도 두개 반만, 농촌으로 수학여행을 왔습니다. 값비싼 해외여행은 아니지만 즐길거리는 다양합니다. 이번엔 말을 타는 기수로 변신합니다. 대형버스를 타고 관광지를 돌며 기념사진만 남기는 대신, ‘우리 반’만의 소중한 추억을 쌓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이 같은 소규모 테마여행을 가는 학교가 전체의 95%. 단순 견학이 아닌 체험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수학여행의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

[출처] news.kbs.co.kr/culture/2012/06/02/2482979.html 2012.06.02.

수학여행의 진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2학년도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길라잡이'에서 수학여행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학여행은 학급단위로 테마를 정하여 실시
- 수학여행의 장소, 체험프로그램 내용 등은 학생과 담임교사가 협의하여 사제동행으로 실시
-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각 1회 이상 실시를 권장
- 수학여행 계획 및 운영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반영
-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모든 교사가 협력하여 인솔
- 교육적 효과 제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인력(지역자원인사, 학부모, 대학생 교육봉사 등)에 대하여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활용

이렇게 해봐요!

1. 수학여행 기획위원회를 구성합니다.

- 학년 담임 및 교과교사로 구성합니다.
- 성장여행의 방향은 공유합니다.
- 학부모 자문단도 구성합니다.
- 부모님도 함께 갈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성장 여행의 방향〉

- 소규모로 떠나는 수학여행
- 주제를 갖고 떠나는 수학여행
- 학생들이 만들어서 떠나는 수학여행
- 교과통합 학습과제를 갖고 떠나는 수학여행
- 부모님과 함께하는 수학여행

2. 목적지를 정합니다.

- 목적지를 여러 권역보다는 한 곳으로 집중합니다.
 -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선정합니다.
- (예) 1안 - 강화도, 2안 - 서울, 3안 - 설악산, 4안 - 제주도, 5안 - 오대산, 6안 - 지리산 등
- 아래표를 참고하여 미리 10여개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심 분야를 스스로 선택합니다.

〈테마 체험 분류와 내용〉

테마 체험 분류	체험 내용
탐방 활동	백제 문화, 신라 문화, 남도문화예술, 산업체 일터 탐방, 생태환경, 과학탐방
자연 체험	오대산 생태 탐사, 태백산 자연 탐사, 레포츠 체험, DMZ생태평화 체험
전통 체험	도자기, 정선아리랑, 남도민요, 판소리, 국악기, 공예품, 다도체험, 막국수 체험
문화예술 체험	문학기행, 예술기행, 뮤지컬, 영화, 연극 관람, 예술관 관람, 작가와의 만남
농촌 체험	음식체험(떡메치기, 두부, 고추장, 치즈 만들기 등), 농사체험(수확 체험)
어촌 체험	해양 레포츠, 승선체험, 낚시, 해산물채취, 갯벌, 물고기 잡기 체험 등
도시 체험	박물관, 덕수궁, 전통 시장, 대형서점, 국회의사당, 방송국, NGO단체 등
봉사 체험	사회복지기관 방문, 한센인 시설 방문 등
공동체 체험	유기농 농사체험, 산림트레킹, 미생물 만들기, 농가 방문, 생산가공 방문
진로탐색 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를 넘어 사회에서 새로운 배움을 스스로 찾아 나서기 • 학교에서 제시하지 않고 개인의 자발성으로 하고픈 일을 체험하기 • 해당기관, 노작체험, 인물을 통해 진로를 구체화 기회 갖기

3. 목적지의 정보 및 공통 탐구과제를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 3월초에 여행 목적지를 알려 줍니다.
- 담임교사와 교과교사가 목적지 및 학생들의 관심 자료를 모읍니다.
(제주도 예시) : 방언, 민속신앙, 신화와 전설, 문화재, 관광사업, 지방자치제 등
- 3월초에 수집 자료를 영역별로 분류하여 공통과제 자료집으로 만들어 나누어 줍니다.
- ‘준비를 많이 할수록! 아는 만큼 보인다!’ 교과 수업에서 충분히 지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4. 학생팀 구성 및 집중 과제를 스스로 선정합니다.

- 학생들에게 스스로 관심분야를 정합니다.
- 관심분야 별 또는 희망자끼리 협력팀을 구성합니다.
- 팀별로 세부 탐사과제를 정하고 수합합니다.
- 학생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제주도 여행코스, 여학생 희망 조사 결과 예시〉

올인 드라마, 올레길, 쉬리의 언덕, 초코렛 박물관, 목장, 녹차 박물관, 휴식과 낭만, 물관

5. 여행 예비 코스 결정 및 답사를 합니다.

- 세부 탐사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스를 정합니다.
- 직접 걸어본 후 시간을 따져봅니다.
- 숙박업소를 찾고, 음식도 하나하나 먹어봅니다.
- 여러 정부기관과 시민단체도 찾아다니며 협조를 구합니다.
- 일정이 겹치거나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을 배정하는 일을 세심하게 고려합니다.

6. 답사후 코스 확정 및 공통 과제 학습지(장)를 간략하게 만듭니다.

- 통합교육 차원에서 공통과제 학습장을 간략하게 만듭니다.
- 공통과제 학습장은 여행 당일 매일매일 취침전 또는 익일 아침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7. 팀별 과제 보고서는 여행 기간 수기로 작성하도록 합니다.

- 과제 해결을 위한 사진, 인터뷰, 관찰 등을 기록합니다.
- 여행 후 빠른 기일 내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8. 발표 기회를 갖습니다.

- 관련 교과 수행평가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수학여행을 다녀 온 것만으로 끝나면 투자한 시간이 아쉽잖아요,
- 여행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이 느낀 점을 발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학교가 있네요!

■ 소규모 및 대규모 혼합 테마 여행 사례

가. 전체 일정

OO여자중학교

일정	교과 활동	활동 장소 또는 내용
첫째날 (수)	국어, 도덕, 수학 과학, 기술·가정	오전 : <전체 학년> 성심여대 운정 캠퍼스, 뮤지컬 관람 오후 : <학급별 테마 탐방>
둘째날 (목)	영어, 미술, 체육	오전 : <전체 학년 탐방> 한국잡월드(직업 진로 탐색) 오후 : <학급별 테마여행>
셋째날 (금)	적응활동 봉사활동	오전 : <전체 학년 체험> 에버랜드 놀이 체험 오후 : 협동 및 친교활동, 문화재 주면 정화활동

나. 학급별 테마여행 일정

기본 자료를 나누어 주고 학급별로 탐방 주제를 선정하도록 합니다.

학급	첫째 날(13:30 ~ 16:30)	둘째 날(13:30 ~ 16:30)
2학년 1반	인사동 - 낙원상가 - 탑골공원	국립중앙박물관
2학년 2반	명동 - 청계천	북촌 한옥마을
이하 생략	이하 생략	이하 생략

■ 소규모 테마 여행 추진 일정 단계 사례

○○고등학교

일정	시기	내용	비고
학년 회의	5/18(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방식 논의	담임교사
교사 안내	5/24(화)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추진배경 설명	담당교사
설문 조사	5/25(목)	실시 여부 및 그루핑 방법	전체교사
프로그램 안내	6/9(목)	테마별 프로그램 안내	학년부
프로그램 신청	6/10(금)	교사별 장소 및 프로그램 신청	전체교사
학생 안내	6/15(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취지 설명	학년부
학부모회 안내	6/17(금)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취지 설명	학년부
가정통신문	6/20(월)	테마형 수학여행 안내 및 동의서 수합	학생, 학부모
학생 모집	6/25(금)	테마별 학생 모집	담임
그룹 조정	6/27(월)	그룹 참가자 조정	학년부
프로그램 확정	7/8(금)	프로그램 및 지도교사 확정	학년부
1차 모임	7/12(화)	역할 분담 및 프로그램 협의	학생, 지도교사
위원회 회의	8/24(수)	교사, 학부모 협의	교사, 학부모대표
2차 모임	8/25(목)	일정, 숙소, 교통편 및 비용 논의	학생, 지도교사
3차 모임	9/1(목)	일정, 숙소, 교통편 및 비용 확정	학생, 지도교사
4차 모임	9/15(목)	팀 규칙 제정, 발표대회 형식과 주제 확정	학생, 지도교사
운영위원회	9/23(금)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심의	부장, 운영위원
가정통신문	9/26(월)	테마별 장소, 프로그램 및 비용 안내	학년부
cms 인출	9/27(화)	수학여행 비용 인출	행정실
5차 모임	10/18(화)	안전교육, 성교육, 규칙 및 준비물 안내	학생, 지도교사
가정통신문	10/18(화)	집합장소 및 준비물 안내	학생, 학부모
발대식	10/18(화)	테마별 팀장 격려	교장, 팀장
수학여행실시	10/19 ~ 10/21	테마별 장소	학생, 지도교사
발표대회준비	10/27(목)	테마별 발표 준비	학생, 지도교사
발표 대회	11/3(목)	테마별 발표	전체학생

■ 함께 참여하는 테마 여행 준비 단계 사례

○○고등학교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 길라잡이 사례를 일부 재구성하여 제시합니다.

가. 수학여행의 목적

- 학생들에게는 수학여행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다양하고 개성 있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 교사에게는 문화 전도사로서의 전문성을 길러 실질적 의미에서의 사제동행을 함으로써 학습의 안내자요, 실천가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우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학부모에게는 테마별 수학여행의 전과정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학여행은 물론 학교 교육 전반에 대한 적극적 동반자로서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
- 학교의 특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는 시대감각에 맞는 수학여행 풍토를 조성한다.
- 사회 각 기관과의 정보교류 및 협조체제를 적극적으로 구축한다.

나. 수학여행의 주안점

- 수학여행의 시기, 장소, 프로그램 운영 등 제반 계획은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과정을 거쳐 실시한다.
- 대규모의 획일적인 여행을 지양하고, 국내 희망지역으로 소규모 집단으로 구성하여 실시하는 테마별 수학여행을 실시한다.
- 생태체험, 역사 기행, 문화 기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체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생활권 확대를 꾀한다.
- 교과, 자치적응,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테마형 수학여행에 대한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고양시키고 여행지에 대한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 테마별 수학여행에 관한 소감문 발표 대회, 표어·포스터·퀴즈대회 등을 실시한다.

다. 사전 학습 실시

1) 교과수업과 연계

교과, 자치적응, 창의적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테마형 수학여행에 대한 흥미와 지적 호기심을 고양시키고 여행지에 대한 사전학습을 실시한다.

※ 교과별 활동: 교과담당 교사가 사전에 각 테마별 수학여행 답사지에 대해 수업을 한다.

교과목	학습 내용
역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족 상잔의 현장 : 거제도 포로수용소 기념관(경남권) • 불멸의 이순신 : 한산도 제승당(경남권) • 서원의 역사 : 덕천서원(경남권) • 실학자 정약용의 유배지 : 강진 다산 초당(서해안권) • 불교의 전래 : 법성포 백제불교도래지(서해안권)

교과목	학 습 내 용
국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비문학의 고장 : 가사문학관, 식영정(섬진강권) • 선비정신의 표상 : 남명 조식의 산천제(경남권)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와 경제 : 죽녹원(섬진강권), 기차마을(섬진강권) • 지역 축제와 연계 : 안면도 꽃박람회(백제문화권), 잉카문명 테마전(서해안권) • 개발과 환경 : 외도(경남권) • 분단의 아픔 : 제4땅굴 통일전망대(강원권)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 강진 고려청자박물관(서해안권)
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동굴의 특징 : 정선화암동굴(강원권) • 용암의 작품 : 한라산, 성산일출봉, 주상절리(제주권) •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들 : 대왕산 용늪(강원권), 순천만갯벌, 갈대(섬진강권)

2) 공모전 개최

적극적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수학여행 실시 전 조사 활동 공모전을 개최한다.

〈먼저 보는 수학여행 활동 공모전〉

1. 목적 : 수학여행 실시 전, 관심과 흥미 유발을 위한 조사 활동 추진
2. 방법 :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모집) 및 학급 게시
3. 제출기한 : 2000년 0월 0일(0) 15:00~
4. 형식 : 자유롭게 작성하되 분량은 A4 크기의 요지 4~10매(동영상은 10분 내외)
5. 시상 : 각 코스별 최우수(1명), 우수(2명), 장려(3명) - 총 30명 시상
6. 세부조사 활동내용(학생 제출)
 - 수학여행 코스 중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의 내용 조사 연구
 - 수학여행지 중 코스(특정유적지도 가능)에 대한 연구
 - 내가 코스를 선택하게 된 배경과 여행의 관점, 배울 점
7. 주요 여행지 및 체험안내

라. 학부모 의견 수렴

학년 초 1학년 학부모총회 등을 실시하여 테마별 수학여행에 대한 배경과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 개진 등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다. 또한 수학여행 코스 관련하여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

마.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가정통신문과 학교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에게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에 대하여 안내하고, 계획단계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의견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피드백의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

바.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

- 위생검열 협조공문발송 <제목 : 수학여행(수련활동) 활동지 위생점검 협조(의뢰)>
- 문화 해설사 지원 요청 <제목 : 2000학년도 테마별 수학여행 문화해설사 지원요청>
- 견학요청 <제목 : 백제문화권 수학여행단 서천화력발전소 견학 신청>
- 신한해운 승선권 예약
- 잉카문명 테마전(고창), 안면도 꽃박람회(태안군)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 한국관광공사(2011). 우리학교만의 특별한 수학여행 : 제2회 초·중·고 수학여행우수사례집
- 한국관광공사(2012). 제1차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 문화교실(<http://www.visitkorea.or.kr>)
- 한국교육여행협회(<http://www.edutour.or.kr>)
- 서울특별시교육청(2012). 소규모 테마 수학여행 길라잡이(<http://www.sen.go.kr>)

이것만은 꼭!

- 관련 교과 내용에서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획 및 준비부터 학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선호하는 것으로 정합니다.
- 3월초부터 학생들의 관계형성을 위해 여행 준비와 교육을 실시합니다.

6 소중한 꿈과 추억을 만드는 현장체험학습



소중한 추억을 가장 많이 만드는 여행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가장 기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이들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장체험학습도 그 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어른이 되어서도 학교생활을 회상할 때, 체험학습을 가서 친구들과 어울리던 것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이러한 체험학습을 보다 소중한 추억으로 기억되고, 배움이 있는 뿌듯한 활동으로 남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장에서 배우는 바른 품성 교육

(충남 공주)반포중은 매월 2회 이상 현장체험 학습을 실천하고 있다. 작게는 교정의 텃밭을 이용한 채소 가꾸기, 고구마 데이 운영, 알밤 줍기 대회, 자연정화활동 등을 통해 환경친화적 활동을 체험하고 있다. 전교생이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채소를 가꾸고 그것을 수확해 점심시간에 나누어 먹으며 감성과 생명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종문화회관의 모차르트 공연, 충남대 정심화홀 음악콘서트, 전쟁기념관, 분당의 잡월드, 삼성전자, 현대제철소, 한국도자기, 카이스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현충원과 계룡대 등을 방문하는 체험행사를 진행했으며 1박 2일로 테크로드 챌린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안목을 키워 진로를 탐색하고 자연스럽게 질서의식을 몸에 배도록 가르치고 있다. 또 전교생이 봉사 동아리를 구성해 학교 인근의 독거노인, 복지 시설을 방문, 공경과 봉사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동아리는 7개 조로 편성해 지도 교사와 함께 매월 셋째 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 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이 따뜻한 청소년으로 키우고 있다.

[출처] 충청투데이 2012.10.3.

이렇지는 않나요?

혹시, 선생님의 학교에서는 대규모로 한꺼번에 체험학습을 다니다보니 단체로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짧은 시간 속에 학급 단체사진을 찍기 위해 서두르지는 않나요? 혹은 하루종일 놀이공원에 아이들을 풀어놓고 있지는 않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소규모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

수백 명이 함께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은 교육 효과 면에서도 그렇고, 통솔하기도 어렵지 않을까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행 규모를 줄이면 어떨까요?

가장 좋은 것은 학급별로 버스 1대 정도의 인원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지만, 2~3개 학급 정도의 규모라면 나름대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요?

2. 주제별로 떠나는 현장체험학습

농촌 체험, 서해안 갯벌 체험, 백제 문화 체험, 과학 체험, 지리산 종주 체험, 서울 문화 체험 등 특정한 주제를 정해 프로젝트 학습형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해당 분야에 대한 사전 학습을 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아이들도 뭔가를 이뤄냈다는 성취감에 젖지 않을까요? 물론 2~3개 주제를 함께 진행할 수도 있겠지요.

3. 아이들이 만드는 현장체험학습 일정

현장체험학습 일정 중의 하루쯤은 아이들에게 온전하게 맡겨보면 어떨까요? 선생님은 아이들의 모둠을 조직하고, 진행과정을 점검하는 것으로 역할을 마치고 말이에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듯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서울로 체험학습을 간다고 했을 때, A모둠은 인사동, B모둠은 남대문 시장, C모둠은 국립박물관 등등으로 하고, 이동도 지하철을 이용해 아이들 스스로 합니다. 선생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이상으로 아이들은 훌륭하게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4. 부모님도 함께하는 현장체험학습

현장체험학습을 떠나기에 앞서 학부모님의 참여를 받아보면 어떨까요? 부모님들과 함께하면 처음에는 서로 어색할 수 있지만 선생님은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은 선생님과 학교를 이해하실 거예요. 또,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함께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5. 교과 학습과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단독 혹은 2~3개 학급으로 규모를 조정한 후 교과 학습과 연계한 여행을 떠나 보시다. 예를 들면, 영어, 사회, 과학, 음악, 미술, 국어, 기술가정 등의 교과목 선생님들이 함께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주제를 정하고, 활동을 진행합니다.

활동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체험활동'이 아니라 '교과학습'시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행사나 체험활동으로 인한 수업시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잠깐만요!!

현장체험학습 진행 절차

- 가. 학교교육계획서 : 실시 시기, 목적, 방법(소규모/학년단위) 등
- 나. 기본계획 수립, 학부모 동의, 선호 조사
 - 담당교원 및 계약 담당 행정직 지정 및 업무분담
- 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시기 · 장소, 업체선정요건 등을 결정
 - 복수안 심의하는 경우 또는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심사(제안서평가 방식)의 평가 및 계약 우선순위를 부여
- 라. 학교장 결재 : 업체 선정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존중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 ① 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마. 세부계획 수립, 사전교육
- 바. 실시
- 사. 현장학습공개방 개설 → 실시 과정 및 결과 탑재

이런 체험 학습 어때요?

■ 오리엔티어링으로 만나는 도심 여행

원주 학성중학교에서는 2008년 가을 체험학습(소풍)을 ‘오리엔티어링으로 만나는 원주’를 주제로 역사 탐험을 실시하였네요. 학생들이 살고 있는 도시를 친구들과 걸으며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문화유적과 만나며,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1. 일시 : 2008년 10월 10일

2. 대상 : 학성중학교 3학년 12개 학급

3. 탐방 장소

김제갑 목사비, 이은찬 추모비, 강원감영, 제일은행 건물, 원동성당, 시립박물관, 민공호 의병장 묘역, 원주향교, 원주고등학교 앞 비석군, 추월대

4. 방법

• 준비 단계

- 장소별로 미션을 부여할 도우미 학생들을 2명씩 선발하여 사전 답사를 실시함
- 학급별로 10명 단위로 모둠을 구성하고, 탐방 장소에 대한 이동 경로를 파악하도록 함
- 모둠별 활동 보고서를 학생들에게 배부하고, 활동 내용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 실행 단계

- 담임 선생님과 도우미 학생들을 각 탐방장소로 배치시켜 모둠 활동 학생들에게 미션 부여
- 담임 선생님은 각 유적지 앞에서 상주하며, 미션을 완수한 학생들에게 스티커 발부함
- 모둠별 이동을 통해 탐방 장소 10곳 중 6곳 이상을 탐방하도록 함
- 이동은 도보, 자전거, 버스, 택시 등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함
- 중식은 이동 과정 중에 도심에서 학생들 스스로 결정하여 해결함

〈주요 일정표 - 학급별 출발지〉

출발 장소	학 급	출발 장소	학 급
김제갑 목사비	1반	시립박물관	7반
이은찬 추모비	2반	민공호 의병장 묘역	8, 9반
강원감영	3, 4반	원주향교	10반
제일은행 건물	5반	원주고등학교 앞	11반
원동성당	6반	추월대	12반

※ 해당학급은 출발장소로 집결하며, 출발은 모둠별로 사전에 결정한 방향으로 이동함

5. 평가 단계

- 모둠별 활동 결과 보고서 제작 및 평가(결과는 역사과 수행평가에 반영함)

강원도에서 한번 느껴 보아요 ~

현장 체험을 가고자 할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를 갈까하는 것이지요. 우리 강원도에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일단은 역사를 주제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인접 지역과 통합하여 체험 학습 코스를 조합해 이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 하루 동안 다녀올 수 있는 체험학습 일정〉

지역	주제	코스
강릉	강릉 단오제 유래와 민속신앙	대관령 국사성황당 → 여성황당 → 굴산사지
고성	천년 전통과 새천년을 꿈꾸며	왕곡마을 → 건봉사 → 화진포(또는 통일전망대)
동해	자연이 빚어낸 신비의 땅	무릉계곡 → 삼화사 → 천곡동굴 → 촛대바위
삼척	삼척의 자연과 민속 신앙	환선굴 → 준경묘 → 공양왕릉 → 해신당
속초	설악산과 불교 신앙	신흥사 → 계조암 → 흔들바위
양구	양구의 박물관 탐방	양구선사박물관 → 방산 자기 박물관 → 두타연(또는 박수근 미술관)
양양	새 세상을 꿈꾼다 - 교종과 선종	진전사지 → 낙산사 →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영월	단종의 유배길을 따라	청령포 → 관풍헌 → 장릉 → 청절서원
원주	남한강 따라가는 폐사지 기행	흥법사지 → 흥원창 → 거둔사지 → 법천사지
인제	만해의 꿈을 찾아서	산촌민속박물관 → 만해마을 → 백담사
정선	아리랑의 고장, 정선	여량 아우라지 → 레일바이크 → 아리랑학교
철원	금강산 가던 길	궁예성터 → 월정리역 → 철원역 → 노동당사 → 정자연
춘천	나라 사랑한 붉은 마음 - 춘천의병	춘천의병마을(유인석, 윤희순묘, 활쓰기) 윤희순 동상 → 춘천국립박물관
태백	산업화의 빛과 그늘	태백석탄박물관 → 산업전사 위령탑 → 정암사
평창	문수신앙의 성지-오대산 탐방	월정사 전나무 숲길 → 월정사 → 상원사 → 적멸보궁
홍천	홍천에서 울려 퍼진 독립운동의 함성	기미만세공원 → 무궁화공원 → 남궁역 기념관 → 수타사
화천	산천의 꿈 - 화천의 자연과 문화	화천민속박물관 → 봉어섬(카트레일카) → 산소길 → 꺼먹다리 → 토속어류생태체험관 → 물레방아공원
횡성	민족의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3.1공원 → 강림 의병총 → 민궁호 의병장 전적비 → 봉복사

※ 모든 일정은 해당 시·군에 문의하면 문화유산해설사가 안내해 드리니 협의하면 좋습니다.

여기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 신나는 교과연계 체험학습 시리즈(주니어김영사. 2012)
- 김휴림의 여행편지(<http://www.hyulimbook.co.kr>)
- 즐거운학교 창의적 체험활동(<http://www.njoyschool.net/chehum2012/main.asp>)

이것만은 꼭!

현장체험학습을 다녀오는 것으로만 끝나면 투자한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어떤 형태로든 느낀 점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행 후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느낀 점을 발표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7 3월이 살아있는 학급운영



아이들과 좋은 관계 맺기

담임이 된다는 것은 '관계 맺음'의 시작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엮어 가느냐에 따라 학급 운영의 성패는 갈리게 됩니다. 그러니 학급운영에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 가야하는 3월, 교사는 참 바쁘지요. 학년이 바뀌면서 새로 준비할 일도 많고, 새로 만난 아이들 얼굴도 익히고 이름도 외워야하고, 이것저것 조사해서 빈칸을 써내야 하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지 않으면 학급운영의 흐름을 놓치기 쉽습니다.

이렇지는 않나요?

겨울방학 동안 각종 연수를 받으며 한껏 의욕에 차서 거창한 학급운영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학년 초에 아이들 앞에서 온갖 약속을 남발한건 아닌지요. 각종 행사를 벌이겠다, 절대 매를 들지 않겠다, 큰소리를 내지 않겠다 등. 처음 한두 번 행사를 하고 나서는 바쁜 일정을 핑계로 머리 속에서 지우고 생활하지는 않았는지요.

3월의 학급 운영 포인트

1. 풍성한 활동보다는 교육과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학급운영이 되도록 계획합니다.
2. 학급임원선출, 모둠이나 두레꾸리기, 학급 규칙 정하기, 학급자치회 등을 통해 학생과 선생님이 함께 만드는 학급공동체가 되도록 합니다.
3. 학습훈련은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생활습관은 반복적으로 칭찬과 격려로 몸에 익도록 합니다.
4. 편지, 상담, 주간학습안내, 학급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와 소통의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5. 진단활동과 연결지어 운영하며, 관찰된 결과들은 상담 자료나 교육과정수립에 활용합니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1. 3월 학급운영 터잡기 - 남부초등학교 한정혜 선생님

구분	〈아이들과 함께〉	〈교사가 준비할 일〉
첫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급이름 정하기 • 사명 선언서 만들기 • 아이들 사진찍기 : 첫 만남의 어색함과 설레임을 담아 한 컷에 찰칵! <p>학기 중이나 학기말의 사진과 비교해보면 아이들의 성장을 확인할 수 있지요~</p>	
첫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석은 자율적으로 • 학급노래 학급규칙 정하기 • 주간 생활계획안내 • 학급달력만들기 • 듣기훈련 자주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적체험활동 시간 집중 운영하기 • 이름 외우기 • 학생실태 파악하기 • 교과학습 바탕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어사전, 작품집, 독서록, 학급일기 • 잘하려는 마음이 보인다는 것 자주 칭찬하기 • 잘 듣는다는 칭찬하기
둘 째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과 생활지도의 성패를 좌우 – 모둠이름, 역할, 모둠일기, 모둠내 역할, 규칙, 모둠세우기 • 학급 보상 안내하기 : 개인, 모둠, 학급 • 학급일기, 일일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래 역량키우기로 따돌림 예방하기 • 모둠일기, 학급일기 • 바람직한 행동 칭찬 • 상담(개별, 집단)
첫 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이름 외우기 대회 • 부서 조직하기(1일1역 겹) • 생일축하, 장기자랑 • 학부모와 소통하기 • 욕 공부하기 • 왕따, 폭력예방(또래상담프로그램 활용) 	
좌 석 배 치	 <p>〈첫 주〉</p>  <p>〈둘째 주〉</p>  <p>〈1학기〉</p>  <p>〈2학기〉</p>	

2. 학부모 내 편 만드는 법 - 삼화초등학교 남정화 선생님

가. 전화 (교사가 먼저 전화하기)

한 달 정도 지나면 학급명부를 보며 날마다 조금씩 전화를 합니다. 담임의 전화를 받는 대부분의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 전화 한 줄 알고 놀라고 긴장하게 되므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냥 안부 전화를 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 문자

안녕하세요?

어느새 개학날이 가까워졌
습니다. 수요일이 개학이구
요. 책은 수학, 수의만 필요
합니다. 2~5답임

[도움요청] 우리반아이들
과 인형극 관람도하고 인
형 만드는 것도 직접체험
할 수 있는 그런 곳 아시는
분 안계신가요? 정보있음
알려주세요

1학기때 까불까불하던 ○○
이가 2학기엔 왠지 조용해
보이는게 걱정되네요. ○○
이한테 무슨일 있는 건 아
니죠?

__//__ 금요일
(—//—) 교통봉사
|○○○| 날이네요.
|○○○| 냉커피!
|__=|

다. 편지

아이보다 더욱 궁금해하는 학부모에게 아이가 전해주는 담임선생님의 편지는 궁금증을 풀어주고 더불어 선생님의 첫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됩니다. 교직경력은 얼마인지, 몇 학년을 가르쳐 보았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이는 있는지, 사는 곳은 어딘지, 앞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 등을 옆에서 이야기해주듯 쓴 편지는 학부모에게 아이의 새로운 담임선생님에 대해 왤지 모를 믿음과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 줍니다.

〈개학날 편지〉

○○○ 부모님 안녕하세요?

올해 ○○초등학교 ○학년 ○반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된 교사 남정화입니다. 서둘러 편지를 준비해서 아이들 편에 보내드려야 하는데 바쁜 일이 겹쳐 오늘에야 편지를 드립니다. 어제 아이들과의 첫 만남은 너무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들은 저의 얘기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에게 오늘 선생님이 어땠냐고 물어보니 어떤 아이는 무섭지 않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무서운 선생님이 될까봐 어제 잠을 못 잤다고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 아이들은 선생님이 무서운지 안 무서운지가 제일 궁금한가봐요.

저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예의바른 교사이고자 합니다. 교직경력이 ○○년 가까이 되다보니 어떻게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는지, 제말을 잘 따르게 할 수 있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귀담아 잘 들어주고 제 맘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면 아이들은 다 들어주고 도와주는 걸 알았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그제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아 문제이지만요. 그리고 아들만 둘 키우다보니 남자아이들이 준비물이나 숙제를 안 해오는 경우도 아주 잘 이해가 되구요, 말썽피우는 것, 정리정돈 못하는 것 등 다 이해가 됩니다.

아참, 제 소개를 좀 드릴게요. 저는 올해 ○○살입니다. ○○○○년 ○월에 교사를 시작했으니까 계산해보시면 제가 얼마나 교단에 있었는지 아시겠지요? 결혼도 일찍하고 아이도 일찍 낳아 고3, 중3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에 근무하다 ○○○○년 ○○에 내려와 ○○초 2년, ○○초 4년, ○○초 1년 있다가 일제고사 시험을 보지않아 2년간 학교밖에 있다가 얼마 전 대법원의 징계무효판결을 받고 학교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3월 2일보다 어제 3월 2일은 저에게 아주 남다른 날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예뻐 보이고, 교실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잘하고 열심히 하려는 마음으로 가득하지만 이 마음이 언제까지 갈지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남자 16명, 여자 17명 모두 서른세 명의 아이들과 그리고 저 이렇게 한 해를 살아가게 될텐데 아이들 마음에 상처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공부시간이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담임에 대한 벽이 상당히 높은 것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씩 그 벽을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략)
봄햇살을 받고 여기 저기 봄을 알리며 피는 노란 민들레처럼 우리 반 아이들 얼굴에 화사한 웃음꽃이 가득 피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두서없는 글을 마칩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상담할 일이 있으면 2시 이후에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주세요.

핸드폰: _____, 이메일: _____@hanmail.net

2011년 3월 3일 담임 남정화 드림

라. 주간학습안내 통신문

주간학습안내 아래에 있는 작은 칸은 아주 유용합니다. 학급어머니회가 열릴 때 이야기 못한 것이나 학부모 편지로 보내기엔 자잘한 이야기들을 매 주마다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 안 싸운다고 좋아했는데 제가 그새 감을 잃어버려 아이들이 서로 어색해서 안 싸웠던걸 모르고 있었네요. 서로 조금씩 친해지더니 남자아이들이 여자아이들을 놀리고 여자아이들은 저에게 일러주러 오고 그러네요. 이번 주에는 학급사진 촬영을 했고, 회장 부회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을 하겠다는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라 무척 놀랐습니다.

또 한 주가 지나갔네요. 지난주 수요일에 많은 학부모님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물론 얼굴을 봤다고 다음에 기억할 자신은 없습니다만, 짧은 시간이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 나눔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많이 아쉬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저와 아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아직 아이들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눌 거리는 있을 것 같아요.

마. 학급 카페

카페 활용을 잘 하는 편은 아니지만 활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카페를 만들어 놓고 날마다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공부시간에 함께 활동한 사진이나 동영상 올리는데 주로 활용합니다. 저학년은 주로 공부시간이 활동중심이라 “오늘 뭐 배웠니?” 하고 부모님이 물어보면 딱히 대답하기가 힘들다. 학부모는 교과서를 봐도 공부시간에 뭘하는지 잘 알 수 없기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아이의 학교생활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학급 운영 카페 - 삼화초 남정화 선생님]

3. 소식지로 소통하기 - 설악여자중학교 김상기 선생님

소식지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운영 및 학급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좋은 자료입니다. 소식지 발간은 주간, 격주, 월간 등 교사의 역량에 따라 발행 시기를 정하면 되겠지요. 처음부터 욕심을 부리면 소식지를 만들고 복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한 쪽 짜리부터 시작하여 익숙해지면 쪽수를 조금씩 늘려 나갑니다. 소식지를 만들면 아이들과 학부모들도 무척 좋아하지만 한 해가 지나고 나면 교사에게는 아주 소중한 교단기록이 됩니다.

종례신문 숙초중 1학년 3반	더디 가도 같이 가자	제 83호 2011년 8월 22일 만든이 : 김상기
--------------------	-------------	------------------------------------

아이들에게

이제 개학이네요.

드디어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 개학하고 학교 나와 책상에 앉아있으려니 힘들지요? 아마 우리 몸과 마음이 방학에 맞춰져서 지내다가 학교생활에 다시 맞추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닐 겁니다. 10시나 11시쯤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밤늦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만화책 읽던 것이 한 달이나 지속했을 테니..... 학교에 와서 1교시나 2교시에 졸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 시작적응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거지요.

아무튼 2학기가 시작되었으니,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학교생활에 맞게 몸과 마음을 추스릅시다. 아직 2학기 정식 시간표도 안 나오고 이리저리 정리할 게 많지만요.

이제 종례신문도 새로 시작해야지요. 오늘 종례 시간에 내주는 문고는 그동안 1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모은 것을 묶어낸 거랍니다. 잘 간직하길 바랍니다. 2학기에도 여러분들이 잘 도와줘서 좋은 문고를 엮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부모님들께서도 좋은 글 이야기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2학기를 기운차게 시작해보자구요. (담임)

함께 읽는 만화

봉숭아 물



정용성 그림
◎ 우리 집 꽃밭에 봉숭아가 활짝 피었 드렸습니다. 이제는 한 잎 두 잎 지고 있구요. 그런데 누군가 손톱에 물들이 는 이도 없네요. 봉숭아물이 다 빠지기 전에 찻눈이 오면 찻사랑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여러 처자 가슴을 설레게 했더 려지요. 그런 말은 누가 만들어냈을까요? 간절하게 찻사랑을 그리워하는 이가 만들었겠지요. 그렇게 동네 처녀들 모여 봉숭아 물들이한다고 수다를 떨고 그 봉숭아 꽃 냄새가 온 마을에 진동을 했는데..... 그 모습이 그림입니다. (담임)

관찰

장봉도에서 꽃게잡이 체험



숙초여중 1학년 3반 종례신문 묶음 ■ 2학기

[매일 발행되는 종례신문]